

종합·해설

“친노에게만 잘못 물을 수 없다 민주당 정체성 회복이 급선무”

■ 원내대표직 사퇴 박지원 의원 직격 인터뷰

대선 패배의 후폭풍이 민주당을 뒤 흔들고 있다. 당장, 당의 진로와 관련, 주류와 비주류 간의 신경전이 증폭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박지원 의원(목포시)은 24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처절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민주당의 정체성과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며 “초심으로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주장, 주목을 끌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호남 열망 잘 포용해야朴 당선인 성공”

-대선 패배의 소회는

▲질려고 노력했어도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 하지만 패배했다. 눈물나게 안타깝다. 대선 패배 이후,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했는데 재래시장 상인 등 서민들의 원망의 눈초리가 저를 울게 만들었다.

-대선 패배의 요인은.

▲요인이야 한이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민주당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 안철수 전 후보만 바라보며 후보단일화 논리에만 매몰됐다. 여기에 대선 주자 TV토론에서 이정

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오버한 것도 중도층이 돌아선 계기로 본다. 국정원 여직원 불법 댓글 의혹에 대한 역풍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도 악재로 작용했다.

-대선 결과, 호남의 고립구도가 형성됐다.

▲호남의 고립 구도로 보지 않는다. 행동하는 양심이 폭발한 것이다. 민주당의 복원, 민생 회복, 남북 관계 정상화에 대한 열망이 터져 나온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대 정신을 담겨 있는



-민주당의 진로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합 등 새로운 것만 찾다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일각에서 ‘민주당 힘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옳지 않다. 스스로의 처절한 반성과 혁신을 통해 내부 동력을 만들고 과감하게 의견을 확장한 뒤, 국민에게 신뢰를 쌓아가 수권정당으로 서야 한다. 특히,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도 개혁이다. 지나치게 좌클릭해서 총선과 대선도 패배했다. 민주당을 정체성과 역량을 복원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역 정치권이 혼을 담아 열심히 일해야 한다. 여기에 지역에서도 인물을 키워야 한다. 죽기 살기로 해야 한다. 단체장 자리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크게 봐야 한다. 민심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과감한 정치적 도전에 나서야 한다. 정치력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출마설이 있는데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가능성은 1%도 없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의 열망을 잘 포용해야 한다.

-친노 책임론에 대한 입장은

▲자기 스스로 책임 져야 한다. 패배한 뒤, 분열해서는 안 된다. 처절한 성찰과 혁신의 길을 가기 위해 ‘대선 패배 백서’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대선도 성찰도 혁신도 하지 못한 지난 총선에서의 실수를 반복한 것 아니냐. 친노, 비노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한 쪽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새누리 ‘박근혜식 부자증세’ 본격화

고소득층·대기업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300조대 지하경제 양성화도

새누리당이 24일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이른바 ‘박근혜식 부자증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또 300조원대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주말 조세소위원회에서 대기업(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6%로 2%포인트 높이기로 최종 확정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의

미한다.

세율 마지노선을 높여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연간 2000억~3000억원의 법인세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또 변호사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도 현행 35%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비과세·감면 상한제도 박근혜식 부자증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복지제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도 적극 추진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여당은 수상한 금융거래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하경제의 세원을 노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창구 원내대표는 FIU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일반적인 세무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FIU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FIU법을 제정해야만 조세 포탈 등을 들여다볼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박근혜식 부자증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복지제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도 적극 추진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야당은 동반자 생각 함께 위기 돌파해야” 황우여 대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4일 “국민을 위해 야당과 함께 위기상황을 돌파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위원회에서 “야당과 깊은 대화를 하겠다”며 “예산과 정책을 하는 데 있어 야당을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다는 기본 자세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선거운동을 치르며 다녀보니 모든 국민이 무엇보다 국민대통합이라는 정신 하나만을 꼭 지켜야 한다는 당부도 주셨다”며 “우리 국민을 하나로 하는 것이 이상의 더 큰 정치 목표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당, 비대위장 겸 원내대표 연내 선출

대선 이후 지도부 공백 사태 최소화 주류-비주류 맞대결 권력투쟁 예고

민주당은 24일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임 원내대표를 연내에 선출, 대선 패배 이후 지도부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비대위원장 지명권 유무 등을 놓고 친노(친노무현) 세력을 중심으로 한 주류와 비주류 측이 갈등을 연착륙하면서 앞으로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세력 간 권력투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 및 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겸임토록 결정했다고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표결에서는 찬성이 45명, 분리가 해서 선출하자는 의견이 37명으로 집계됐다.

후보등록 및 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비대위원장 겸 선임 원내대표는 오는 28~31일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잔여임기인 내년 5월초까지다.

민주당은 또 18대 대선 패배의 원인 분석과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내 선출될 비대위원장이 대선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연석회의에 앞서 당무위는 대표권 한대행인 문재인 전 대선 후보의 비대위원장 지명 권한 유무와 관련해 대표의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권한이 없는 것으로 유권 해석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론을 내리기까지 주류와 비주류는 치열하게 대립했다.

우선, 주류 측은 대선 이후 지도부 공백사태 해소와 내부 수습을 위해 비대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비주류 측은 주류 측의 기득권 유지와 당권 재장악을 위한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나타냈다. 또 주류 측은 원내대표와 별도로 외부 인사 등을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을 염두에 뒀지만 비주류 측은 문 전 후보가 비대위원장 지명권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할 것을 요구해왔다.

일단,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면서 원내대표 경선이 주류와 비주류 간 대선 이후 주도권 장악을 위한 첫 대결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주류와 비주류는 모두 처절한 내부 해신과 범야권 통합의 성사를 민주당의 살 길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각론에서 입장차가 커서 갈등이 격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선 패배로 휘청이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24일 국회 본청 246호에서 열렸다. 노영민(앞줄 왼쪽부터), 추미애 의원과 윤호중 사무총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시대’ 당·청관계는?

측근들 “3권 분립 정신 존중 협조체제 유지할 것”

‘박근혜 시대’ 출범을 앞두고 당·청 관계가 어떻게 정립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청 관계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순환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 로 평가된다.

참여정부 때는 철저한 ‘당·청 분리’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여권 내에 갈등이 잦았다고 이는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이를 반변교사 삼아 ‘당·청 일체’에 무게중심을 두고 소통을 강화했으나 도중에 여당 내 권력이 친이(친이명박)에서 친박(친박근혜)으로 넘어가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끝까지 큰 틀의 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이 역대 처음으로 탈당하지 않는 기록을 남겼다.

박근혜 정부의 초기 당·청 관계는

두 정부와 또 다른 차이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청 분리가 아니고 그렇다고 당·청 일체에 중점을 둔 기계적 소통 시스템도 아닌, 즉 3권 분립의 정신을 존중하는 가운데 여당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지금처럼 여당과 다양한 협의 채널을 가동하되 청와대의 일방적 주문 대신 국회 본연의 기능을 존중하고, 대화와 소통의 폭을 넓혀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것을 토대로 야당과도 적극 대화하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용카드 한도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상품권 매입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개인 출장가능!

현금필요하신분
3분 이내 즉시해결!

H. 010-2082-6353
TEL. 062)383-6364

은명철학

人間の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것일까? 또는 운명적 적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서도 죽한기 제대로 못먹고, 신음하는 노후 인생과 빈명들은 정녕 노력을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을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 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숙명관에 어떻게 배열되었는지 참고점점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자미두수 대가!

강정강의강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원 주자점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곰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부동산 거래, 유통회 자산매각 전문회사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경매 / 정확화된리분석 / 최상의대출

상담전화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상담전화 김종원 이사 010-8227-77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센터 [전북김제] 대8076㎡, 건5004㎡, 감정가 25억, 최저가 6억 5천 주유소 [나주남평] 대4428㎡, 건5533㎡, 감정가 10억6천, 최저가 5억4천 원룸 [계림동] 대333㎡, 건803㎡, 감정가 6억7천, 최저가 3억4천 공장 [나주공산] 대29710㎡, 건1826㎡, 감정가 17억, 최저가 8억 공장 [장성동화] 대1983㎡, 건2320㎡, 감정가 7억, 최저가 3억 9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구 대동동 [2층공점] 대1506㎡, 건1031㎡, 감정가 39억8천, 매매가 25억5천 북구 대동동 [2층공점] 대3289㎡, 건1601㎡, 감정가 52억4천, 매매가 36억7천 목포 상동 [숙박시설] 대170㎡, 건544㎡, 감정가 18억9천, 최저가 13억1천 무안 망운 [숙박시설] 대257㎡, 건346㎡, 감정가 11억, 최저가 7억2천 화순 도곡 [무민동] 대190㎡, 건2628㎡, 감정가 26억7천, 최저가 18억7천 영광법성 [근린상가] 대106㎡, 건1297㎡, 감정가 134억9천, 최저가 24억4천 목포 상동 [근린주택] 대1295㎡, 건3633㎡, 감정가 13억, 최저가 7억4천 목포 상동 [근린주택] 대1697㎡, 건2048㎡, 감정가 88억, 최저가 76억2천 목포 상동 [근린주택] 대700㎡, 건4233㎡, 감정가 22억7천, 최저가 14억9천

입매 및 매매 감수회 공인중개사 010-8567-4600

12월31일 오픈 예정인 (주)솔함기닷컴에서 업계최고의 대우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찬모(여)2명, 설것이(여)1명, 출서방6명, 매니저(남,여)2명, 매점(여)1명, 경리(여)1명, 영업부(남,여)2명
 • 복리후생 : 4대보험,퇴직금,월4회휴무,급여 : 업계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
 • 근무처 : 나주시남평읍 통림리 171번지 서류접수시 면접,상담가능(시간예약) H.010-7570-7525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에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본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기구주택,원룸,투룸,스트리움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지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최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대가 협의 후 결정
- 지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대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지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정 학교용도로 적합
- 비어있는 지면적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무리법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